

## “전수검사 때로 회귀?” 광주 학생확진 증가... 학교·학부모 긴장

이틀연속 100명대 확진... 재감염 사례도 증가

광주교육청 “교육부 지침 강화될 것으로 전망”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광주지역 학교와 학부모도 긴장하고 있는 모양새다. 방학을 2주정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온라인 수업 전환·조기방학 등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코로나19가 감소하던 지난 5월 1일 교육부가 ‘정상등교 결정’을 내린 이후 이날까지 코로나19 관련 일선 학교 방역지침은 바뀌지 않았다.

학교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자가격

리하고 교사 등 밀접접촉자는 검사를 하지만 권고사항이다. 확진자 1명이 발생할 경우 전수검사는 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하위종(BA.5)으로 인해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방역지침 강화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광주지역 코로나19 학생·교직원 감염자는 지난 11일 171명, 12일 186명 등 이틀 연속 100명대를 기록했다.

이달 들어서도 지난 1일 22명, 2일 10명, 3일

14명, 4일 74명, 5일 64명, 6일 61명, 7일 52명, 8일 73명, 9일 14명, 10일 16명 등 주말을 제외한 평일 확진자 증가세는 뚜렷하다.

학교 일일 확진자 최고는 지난 3월 28일 3565명이며 지난 2020년 2월부터 전날까지 누적 감염자는 8만4641명이다.

확진자가 급증했던 지난 3월처럼 하루 1000명 이상의 학생·교직원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재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학교와 학부모 등은 교육부의 지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정부의 방역지침을 토대로 일선 학교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까지 온라인 수업 전환, 조기 방학 등은 검토되지 않았지만 학교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학부모 A씨는 “지난 3월에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비롯해 온 가족이 확진돼 자가격리했다”며 “재감염 우려는 없다고 해 조금 안심했는데 이번 바이러스는 재감염되는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정승호기자

### 광주시, 중외공원 삼거리 등 교통사고 잦은 16곳 개선한다

차로 조정·기하 구조 개선·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12일 오후 광주 북구 문흥동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들이 일시 정지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부터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광주시에 지역 내 교통사고 다발지점 16곳에 대한 개선사업을 시행한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인명 피해 기준 동일 위치에서 연간 5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고 다발지점을 대상으로 한다.

광주시·경찰·도로교통공단·행정안전부가 함께 지점을 선정하고 차로 조정·기하 구조 개선·교통안전시설을 추가 설치, 교통환경 개선과 사고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내용으로 진행한다.

대상은 북구 운암동 중외공원 삼거리, 운암네거리(문화예술회관), 오치동 도로교통공단 네거리, 임동 발산교네거리(천변우로

네거리), 진월동 시티병원 주변, 치평동 옛상무대 정문 앞 삼거리, 양산동 우체국 네거리, 백운동 휴먼시아 1단지 앞 도로, 신창동 첨단교차로, 평동산단 1번로 입구 삼거리, 화정동 교원공제회관 네거리, 동림동 장애인복지회관 네거리, 비야동 광산교차로, 유동 양유교 네거리, 신가동 신가네거리, 운암동 무등경기장 네거리~신안동 광주역한글야매리움 앞 등 16곳이다.

도로교통공단이 작성한 기본계획에 따라 광주시에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이중 9곳(14억 원)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공사를 시행, 9월 준공한다. 나머지 대상 지역은 추가 사업비 확보 뒤 추진한다.

대상지 중 운암동 중외공원 삼거리는 교통섬 확장설치·횡단보도 이설·신호등 추가설치 등 관계기관 검토를 통해 시민 제안을 최종 반영한 사례라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임찬혁 광주시 교통정책과장은 “공사 시행에 따라 일부 차량통제가 있을 예정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도로교통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활짝핀 구례군 서서천변 '원추리'

구례군 용방면 지용관부터 서서천 지리산둘레길 안내센터까지 4km 구간에서 원추리 꽃이 활짝 피어있다. 원추리는 여름철 야생화의 대명사로 이맘때 구례군 섬진강 서서천변 지리산둘레길을 따라 산과 들을 연노랑색으로 물들이고 있다. (사진=구례군청 제공)

### 여수박람회장 '빅오쇼·야시장' 내일 개장... 전남도민 무료입장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 오는 15일 빅오쇼(Big-O Show) 개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박람회장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13일 박람회재단에 따르면 빅오(BIG-O)쇼는 워터스크린, 분수, 화염, 레이저, 안개 등을 활용해 오감을 만족시키는 화려한 멀티미디어 쇼로 지상최고의 분수쇼다.

재단은 작년에는 박람회 성공개최의 주역인 여수시민들이 특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여수시민 주차료 50% 감면’과 함께 ‘여수시민 빅오쇼 무료 관람 정책’을 시행 한 바 있다.

올해는 박람회 성공개최 10주년 기념 해를 맞이해 빅오쇼 오픈일인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수시민을 포함해 전남도민까지 빅오쇼 무료 관람 정책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휴장일을 제외한 43일간 관람을 위한 전라남도민은 빅오쇼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매한 뒤 관람 당일 빅오쇼 매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무료입장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재단은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 10주년 기념해 박람회장 국제관을 활용해 ‘여수야(夜)놀자! 야시장’을 개장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금·토요일 쉽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25th Muan Lotus Festival

제 25회  
**무안 연꽃축제**

연꽃의 향기! 백련의 사랑!  
 사랑이 이루어지는 회산백련지

2022. 07.21(목) ▶ 07.24(일)  
 무안군 회산백련지 일원

2022 한국관광공사  
 안심관광지 선정

주최 무안군  
 주관 무안군 축제추진위원회